

28 주동과 사동 표현

[2010년 3월 3학년 서울시교육청 12번 문제]

632. <보기>의 ㉠의 경우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?

<보 기>

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하는 것을 나타내는 문법 기능을 사동(使動)이라고 하며, 사동문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실현된다.

- (가) 어머니께서 딸에게 색동옷을 입히셨다.
- (나) 어머니께서 딸에게 색동옷을 입게 하셨다.

(가)에서는 '입다'에 접미사 '-히-'를 결합하여 사동을 실현하였으며, (나)에서는 '-게 하다'를 덧붙여 사동을 실현하였다. 그런데 (가)와 (나)는 의미 해석이 서로 다를 수 있다. ㉠(가)는 딸이 스스로 입을 수 없어서 어머니가 직접 입혀 줬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, 딸이 자신의 힘으로 색동옷을 입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. 그러나 (나)는 후자의 뜻으로만 해석할 수 있다.

- ① 다정이는 찬물을 유리잔마다 가득 채웠다.
- ② 어머니는 나에게 밥을 먹이려고 상을 차리셨다.
- ③ 아버지는 진수에게 동생을 업히고 앞서 걸으셨다.
- ④ 그녀는 이번 발표회를 위해 경미에게 발레화를 사서 신겼다.
- ⑤ 정원은 집에 초대한 친구들에게 졸업 앨범을 보여 주었다.

[2012년 9월 1학년 학력평가 7번 문제]

633. <보기>를 바탕으로 '국어의 사동 표현'에 대해 탐구 학습을 진행하였다. 학습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<보 기>

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자기 스스로 행하는 것을 주동(主動)이라고 하고, 주어가 남에게 어떤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사동(使動)이라 한다.

- 주동문(S₀): 아이가 옷을 입었다.
- 사동문(S₁): 어머니께서 아이에게 옷을 입히셨다.
- (S₂): 어머니께서 아이에게 옷을 입게 하셨다.

- ① S₀과 S₂에서 '옷을 입는' 행동을 하는 주체는 동일하다.
- ② S₀을 S₁이나 S₂로 바꿀 때에는 S₀의 주어가 S₁, S₂에서 부사어로 쓰인다.
- ③ S₀에 없던 주어 '어머니'가 S₁, S₂에 나타난 것은 사동 표현이 행위를 시키는 주체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.
- ④ S₀의 동사 '입다'의 어간 '입-'에 S₁의 사동 접사 '-히-' 또는 S₂의 '-게 하다'를 붙이면 사동문을 만들 수 있다.
- ⑤ S₂의 경우, 어머니가 직접 아이에게 옷을 입혔을 수도, 아이에게 옷을 입도록 지시만 했을 수도 있는 중의성이 생긴다.

[2013년 6월 2학년 학력평가 A형 14번 문제]

634. <보기>를 참고하여 사동문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<보 기>

선생님: 주어가 직접 동작을 하는 문장은 '주동문'이라고 하고, 주어가 남에게 어떤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문장은 '사동문'이라고 해요.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려면 동사나 형용사의 어근에 사동 접사 '-이-, -히-, -리-, -기-, -우-, -구-, -추-'를 붙이거나, '-게 하다', '-시키다'를 활용하면 됩니다. 다음 예문을 보면서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때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?

[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꾼 예]

- ㄱ. 개가 밥을 먹다. → (철수가) 개에게 밥을 먹이다.
- ㄴ. 그가 집에 가다. → (영희가) 그를 집에 가게 하다.
- ㄷ. 동생이 학교에 입학하다. → (어머니께서) 동생을 학교에 입학시키다.

- ① ㄱ~ㄷ 모두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려면 새로운 주어가 필요하다.
- ② ㄱ~ㄷ에서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 목적어나 부사어가 되는군.
- ③ ㄱ의 주동문은 ㄷ처럼 '-시키다'를 붙여 사동문으로 바꿀 수 없겠군.
- ④ ㄴ의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면 집에 가는 주체가 달라지는군.
- ⑤ ㄴ의 주동문은 사동 접사를 붙여서 사동문으로 바꿀 수는 없겠군.

[2013년 6월 3학년 모의고사 A형 13번 문제]

635. <보기>를 참고하여, 학습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옳은 것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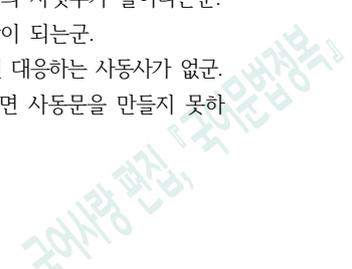
<보 기>

일반적으로 사동문은 주어가 다른 대상을 동작하게 하거나 특정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문장을 가리킨다. 사동문은 어근에 접미사가 결합한 사동사나 어간에 '-게 하다'가 결합한 구성에 의해 만들어진다.

학습 자료

	A: 주동문	B: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	C: '-게 하다'에 의한 사동문
㉠	동생이 숨는다.	누나가 동생을 숨긴다.	누나가 동생을 숨게 한다.
㉡	동생이 밥을 먹는다.	누나가 동생에게 밥을 먹인다.	누나가 동생에게 밥을 먹게 한다.
㉢	실내 온도가 낮다.	누나가 실내 온도를 낮춘다.	누나가 실내 온도를 낮게 한다.
㉣	동생이 공을 찬다.	해당 사례 없음	누나가 동생에게 공을 차게 한다.

- ① ㉠, ㉡을 보니, A의 주어는 C에서 동일한 문장 성분으로 나타나는군.
- ② ㉠, ㉢을 보니, A가 B로 바뀌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늘어나는군.
- ③ ㉡, ㉢을 보니, A가 B로 바뀌면 겹문장이 되는군.
- ④ ㉡, ㉢을 보니, A의 서술어가 타동사이면 대응하는 사동사가 없군.
- ⑤ ㉢, ㉣을 보니, A의 서술어가 형용사이면 사동문을 만들지 못하는군.



V 국어 규범과 국어 생활

30 표준어 규정

[2006학년도 수능 13번 문제]

660. <보기 1>과 같은 표준어 규정을 바탕으로 <보기 2>를 이해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<보기 1>

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.

(예) 오뚝이(×) → 오뚝이(○), 쌍둥이(×) → 쌍둥이(○) 등.

다만,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다음 단어에서는 양성 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부조(扶助)	부주	~돈, ~금
사돈(査頓)	사둔	밭~, 안~
삼촌(三寸)	삼춘	외~, 처~

<보기 2>

- ㉠ 그 아이는 좋아서 깡충깡충 뛰며 어쩔 줄 몰라 했다.
- ㉡ 내가 그 애와 똑같다며 쌍둥이가 아니냐고 묻곤 했다.
- ㉢ 어릴 때부터 삼촌은 나의 든든한 후원자였다.

- ① ㉠의 '깡충깡충'을 '깡충깡충' 대신 표준어로 정한 것도 이 규정에 따른 것이겠군.
- ② ㉡의 '쌍둥이'를 보니 '막둥이'나 '흰둥이'도 예전에는 '막둥이', '흰둥이'였겠군.
- ③ ㉢의 '삼촌' 대신 '삼춘'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, 어원을 고려하여 '삼춘'으로 사용하라는 것이군.
- ④ ㉠의 '깡충깡충'과 ㉢의 '삼촌'은 둘 다 음성 모음 형태로 발음하는 습관을 반영한 것이겠군.
- ⑤ 대다수 언중들의 발음 습관이 달라져 굳어지면, 그 어휘들의 표준어형도 달라질 수 있겠군.

[2006년 6월 1학년 학력평가 12번 문제]

661. 밑줄 친 단어 중, 표준어가 아닌 것은?

- ① 뒤영긴 넙쿨을 뒤적거려 참외를 찾았다.
- ② 교실 안은 우뢰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.
- ③ 미역국은 소고기를 넣어 끓여야 깊은 맛이 난다.
- ④ 정부의 안일한 느장 대응이 또다시 큰 피해를 가져왔다.
- ⑤ 봄철에 가물이 들면 농사에 지장이 많고 산불도 우려된다.

[2007년 6월 3학년 평가원 11번 문제]

662. <보기>를 바탕으로 탐구한 내용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?

<보 기>

- '쇠고기'와 '소고기'는 모두 표준어이다.
- 옛날에는 '쇠고기'를 '쇠고기(쇼 + 이 + 고기)'라고 했다. 이 경우 '쇼 + 이(관형격 조사)'는 '쇠'로 축약된다.
- 옛날에는 '돼지고기'를 '도티고기(둘 + 이 + 고기)'라고 했다.

- ① '쇠고기'는 옛말의 구조를 고려할 때 소의 고기라는 뜻이군.
- ② '쇠고기'는 여러 단어가 합쳐져 한 단어로 발달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군.
- ③ '쇠고기'의 옛말은 '돼지고기'의 옛말과 그 구조가 달랐다는 말이군.
- ④ '소고기'는 동물 이름에 바로 '고기'가 붙은 단어이군.
- ⑤ '닭고기'의 옛말은 '들기고기(들 + 이 + 고기)'라고 했겠군.

[2008년 11월 1학년 학력평가 12번 문제]

663. <보기>의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<보 기>

우리말에서는 뜻이 같으면서 형태가 다른 낱말들이 있을 때, 그 쓰임의 범위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면 모두 표준어로 삼고 있다. 가령, '신'과 '신발'은 쓰임의 범위가 비슷하므로 모두 표준어이다. 이를 가리켜 '복수 표준어'라 한다.

- ① 천둥 / 우레
- ② 나귀 / 당나귀
- ③ 옥수수 / 강냉이
- ④ 자물쇠 / 자물통
- ⑤ 선머슴 / 풋머슴

[2011년 9월 2학년 학력평가 12번 문제]

664. <보기>를 바탕으로 '표준어 사정 원칙'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<보 기>

㉠ 제12항 '웃-' 및 '윗-'은 명사 '위'에 맞추어 '윗-'으로 통일한다.

㉡ 윗몸, 윗입술, 윗도리

㉢ 다만 1.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'위-'로 한다.

㉣ 위작, 위채, 위층

㉤ 다만 2. '아래, 위'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'웃-'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.

㉥ 웃웃, 웃국, 웃돈

- ① 사람의 '배'는 ㉠의 규정에 따라 '윗배'라고 적어야 해.
- ② '위턱'은 ㉢의 '위층'과 같은 규정을 적용해야 해.
- ③ '윗니'는 ㉤의 규정에 따라 '웃니'로 표기해야 해.
- ④ ㉡와 ㉤는 위아래의 대립 여부에 따라 표기가 달라지는군.
- ⑤ ㉡, ㉢, ㉤는 모두 단어를 만들 때 적용하는 규정이군.